

언어습득에 대한 몇가지 분석

전 원 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을 개조하자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과학적인 기술공정을 정확하게 거쳐야 하는것처럼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자면 인간발전의 법칙에 따르는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쳐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479~480페이지)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시키고 숙련시키려면 해당 지식이나 기능을 사람들이 어떻게 습득하고 숙련하게 되는가, 그 과정은 어떤 합법칙적단계를 거치게 되는가, 그 과정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석하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외국어교수는 사람들의 언어습득과 언어습득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 그 과학성과 효과성이 담보될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언어습득의 본질과 조건 및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언어습득의 본질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언어습득의 본질에 대하여 선행문헌들에서는 《언어를 습득한다는것은 사람들이 사회적현상이며 객관적인 존재인 언어를 자신의것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리용해나갈수 있게 준비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로, 언어습득은 언어의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볼 때 어휘(단어)와 문법구조에 대한 습득이라고 말할수 있다는것이다.

둘째로, 언어습득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언어의 음성적측면과 의미적측면의 습득이라고 볼수 있다.

셋째로, 언어습득은 그것을 언어행위의 방식적측면에서 볼 때 입말과 글말의 습득이

라고 볼수 있다는것이다.

언어습득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원만하다고 볼수 없다. 비록 언어의 구성요소인 어휘와 문법을 원만히 습득하였다 하더라도 또 언어를 음성과 의미의 측면에서 습득하고 말과 글을 자유롭게 리용할줄 안다 하더라도 적중한 계기와 대상에 맞게 적중하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능력이 없다면 언어를 완전히 습득했다고 볼수 없다.

언어교제를 진행할 때 교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제대상의 특성에 맞게 또 교제의 목적에 맞게 주어진 정황을 고려하여 적중한 언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대화하는 대상과 장소에 따라 같은 사상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될수 있다.

실례로 늙은이에게 하는 말과 젊은이에게 하는 말, 어린이에게 하는 말이 같을수 없다. 같은 말인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언어습득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는 언어사용환경의 측면에서 대상과 정황에 맞게 적중하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능력을 소유하는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언어습득의 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언어는 자연적, 본능적현상인것이 아니라 사회생활과정을 통하여 배워서 습득하게 되는 사회적현상이다.

언어습득의 조건에 대하여 선행문헌들에서는 언어습득의 가장 중요한 외적조건이 사회의 언어적환경과 교육이며 언어습득의 생리적조건에서 기본이 언어중추의 기능이라고 하였다.

언어습득의 조건에 관한 문제는 외국어 교육의 견지에서 볼 때 객관적조건과 결정

적조건으로 분리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언어습득의 객관적조건으로는 언어환경과 언어교제를 들수 있다.

언어환경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어린이들은 언어환경속에서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1차적 요구에 맞게 필요한 언어자료들을 취사선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실험적으로 써보는 과정에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언어환경이 없는 경우(외국어습득인 경우)에 언어습득은 인위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 경우 언어습득기간은 오래 걸리게 되며 언어습득의 성공률도 사람마다 차이나게 된다.

언어교제는 언어습득의 중요한 조건이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로 되게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언어교제이다. 사람들은 사회적관계를 맺기 위하여 언어를 리용하게 되며 그 과정에 언어그자체도 배우게 된다.

언어교육은 언어습득의 결정적조건이다.

사람이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자면 언어환경과 언어교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어환경과 언어교제를 통한 언어습득은 언어습득의 한 측면 즉 입말의 습득으로만 끝난다.

언어교제는 입말로 진행될수도 있고 글말로도 진행될수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언어교제는 입말교제이다. 사람들이 이 교제과정을 통하여 초보적인 언어지식을 소유하고 언어행위실천기능을 숙련하게 되지만 언어에 대한 완전한 습득,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습득은 언어교육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언어행위가 개인적성격을 띠는것으로 하여 입말교제과정에 부닥치는 언어자료들은 비규범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은 언어규범에 대하여 잘 알게 되며 읽고 쓰는 기능도 완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언어습득의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언어의 습득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단계는 말을 처음으로 배우고 사용하는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입말습득이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시기이다.

우선 이 시기는 생활어휘가 매우 풍부해진다. 이 시기는 약 3 000 개의 어휘를 소유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품사가 다 포함된다.

또한 정확한 발음을 한다. 이 시기 음운적발성은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일상적인 언어실천과 교육을 통하여 문법구조를 보다 정확히 습득해나갈뿐 아니라 공고해지며 그에 따라 각이한 형태의 문장을 습득해나간다. 이 시기 문법구조의 리해에 의한 문장습득은 언어적습관의 형성, 언어행위의 개성화가 이루어지는것을 통해서도 더욱 공고해진다.

영어인 경우 동사의 정확한 형태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피동상과 완료시칭 지어 가정법문장도 사용하며 종속복합문도 활용한다고 한다.

셋째 단계는 이미 습득된 입말이 세련되고 글말이 새롭게 발전하는 시기이다.

우선 이 시기에는 말소리를 정확히 듣고 정확히 발음할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는 또한 어휘습득이 매우 왕성해진다. 동시에 어휘의 의미리해에서도 보다 정확해진다.

또한 이 시기에는 문법구조의 리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글말습득의 네단계 즉 글자에 대한 정확한 지각, 글자 또는 단어를 읽고 쓰는것, 책을 보며 글을 자유롭게 읽으며 불러주는것을 받아쓰는것,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는것 등을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배운다.

넷째 단계는 언어습득이 더 높은 단계에서 완성되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우선 입말이 높이 발전하며 상

대적으로 고정된다. 또한 약 3만~4만개 정도의 어휘를 습득하며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 지적활동에서 그리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시기는 문법구조의 측면에 대한 이해가 높이 발전하여 기본적으로 완성된다. 글 읽기와 글쓰기가 자유롭고 정확하며 자기의 사상과 의도를 글로 얼마든지 표현할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언어습득의 발달과정은 인간 성장에 따라 일정한 단계와 특성을 가지고 발달한다.

언어습득과정은 언어지식습득순서의 측면에서 볼 때 어휘를 먼저 습득하고 그다음에 문법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다.

단어는 언어의 기본단위로서 언어의 음성적측면과 의미적측면을 체현하고있다. 따라서 단어습득은 곧 음성적측면에 대한 습득과 의미적측면에 대한 습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에 기초하여 문법을 배우게 된다. 문법습득도 단어들의 의미적측면에 대한 습득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또한 언어행위실천기능소유순서의 측면에서 보면 듣기-말하기-읽기-쓰기순서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들을수 있게 되자면 일정한 기간 말을 못하는 시기(침묵기)가 반드시 있게 된다. 이 침묵기를 거쳐 다른 사람이 말하는것을 듣고 그로부터 단어도 배우고 단어들의 연계방식도 배우게 된다. 한편 다른 사람이 말하는것을 반복하는 과정에 말하는 기능도 형성된다. 초보적인 입말기능이 형성되면 교육을 통해 읽기기능과 쓰기기능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교육을 통해서 언어의 형태적측면을 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언어습득의 본질과 조건 및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언어습득의 본질로부터 외국어교수에서는 언어습득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교수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어음, 어휘, 문법과 함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기능, 정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를 구사할수 있는 능력 등이 외국어교수의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언어습득의 조건으로부터 외국어교수에서는 충분한 언어적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외국어로 교체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언어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언어행위실천련습을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언어습득의 과정으로부터 외국어교수에서는 우선 문법교육보다 어휘교육을 선행하여야 한다고 볼수 있다.

또한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수 있는 조건에서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며 그에 따라 읽기와 쓰기를 배합하여야 한다.

또한 체계성과 순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음자료인 경우 낮은 학년 교재에서는 될수록 한음절단어부터 취급하며 어휘자료인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문형인 경우 한단어문장으로부터 두단어, 세단어문장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의 첫단계부터 언어자료사용의 정확성과 류창성에 다 주의를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외국어교육을 높은 과학리론적으로 대우에서 진행하기 위한 교육과학연구를 심화시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